

어린이 책꽂이

▲만약에 세계사에 이런 일이 없었
다면?(전2권)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역
사적인 사건들
을 '만약에~'
라는 가정으로
상상하며 세계
사를 풀어본다.

역사를 단순히 외우기
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
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의
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주니어랜덤·각9천800원〉

▲황제와 연=아주 오래전부터 중
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어린
이를 위한 그림
책으로 다시
만들었다. 세
상에서 가장
큰 황제지만 포로로 갇히게 되자 가
장 작은 딸의 용기와 하늘을 나는 연
만이 황제를 구한다는 이야기이다.

〈다산기획·8천800원〉

▲두사람=남편과 아내, 부자와 모
녀, 형제, 자매
등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 사이
의 의미를 어
린이들의 눈높
이에 맞춰 들
여다 본 그림책이다. 장면마다 펼쳐
지는 시적인 이미지들이 사람사이의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세계잡·9천800원〉

▲전쟁과 아우=질투와 욕심 때문
에 동생을 죽
인 카인의 살
인을 통해 사
람들의 욕심
이 얼마나 끔
찍한 결과와
후회를 가져
오는 지를 일깨운다.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철학적
으로 그리고 있다.

〈은나팔·9천500원〉

▲고그린맨 vs 심술통 때론 공갈 팍
팍씨=11세 환
경운동가 조너
선 리의 재기
발랄한 과학환
경동화, 행복
한 초록마을의
고그린맨과 호
시탐 탐과
괴를 노리는 악당무리들과의 박진감
넘치는 대결구도가 흥미진진하게 펼
쳐진다.

〈삼성출판사·1만원〉

운전대만 잡으면 왜 옥부터 나올까

위험한 호기심 알렉스 보즈 지음

라이트 형태의 호기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
늘을 날게 만들었고, 에디슨과 벨의 호기심은 전
기와 전화를 발명하게 만들었다. 호기심은 분명
인류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 호기심이 낳은 결
과물이 꼭 '홍통'했던 것만은 아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방아
찢는 토끼'에 대한 낭만은 사라졌고,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는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었지만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되기도 해 많은 사
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했다.

'위험한 호기심'은 과학사를 전공한 알렉스 보
즈가 호기심에서 비롯된 69가지의 이색적인 심
리실험을 모아 소개한 책이다.

책에는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과도한' 상상

력에서 비롯된 다소
'위험한' 실험뿐만아
니라 왜 사람들은 운
전대를 잡으면 옥을
하는지 등 한번쯤은
상상해볼 만한 호기
심에서 출발한 실험까
지 다양한 사례가 실렸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느끼는 공포감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형집행 당일 사
형수의 손목에 전자 센서를 부착해 심장박동 사
율을 살폈다. 사형수는 웃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심장은 1분에 180회나 뛰면서 요동을
쳤다. 그것은 1분에 평균 72회 뛰는 보통 사람의



심장박동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또 바퀴벌레가 정말 핵전쟁이 일어나도 지구
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퀴
벌레에게 방사선을 쏘기도 했다. 바퀴벌레에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양인 1천레드(흡수선량)
를 쏘였을 때 생식능력을 잃었고 4만레드에서는
죽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방사선량을 견뎌냈지만 지구가 종말을 한
다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는 말은 전설에
불과했던 것이다.

1900년 당근 맥주였다는 의사는 영혼의 무
게를 알아보기 위해 임종을 앞둔 결핵환자를 특
별히 만든 저울 위에 올려놓고 죽기를 기다렸다.
환자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을 때 줄어든 무게는
약 21g이었고 맥주결은 그것이 영혼의 무게라고
말했다.

잠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열하루 동안 자지
않고 버티기나 눈뜨고 자기 등 무모해보이는 실험
뿐만 아니라 전설처럼 게가 주인을 구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상으로 주인을 위협한
상황에 빠트린 뒤 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보는 실험도 진행했다.

이밖에 동상애자신 알아보기 위해 '전기 피
부 반응 장치'를 부착한 뒤 옷을 벗은 남자의 사
진을 보여주는가 하면 코끼리에게 환각제를 먹
이고 양과 눈싸움을 하는 황당한 실험도 해봤
다.

책은 엉뚱하다 못해 황당하게 느껴지는 실험
일지라도 이 역시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알고 싶
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심한 장난풀이
가 아닌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진지한' 실험
이었다고 강조한다. 특별한 과학지식이 없어도
쉽게 읽힌다.

〈한겨레 출판·1만3천원〉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삶과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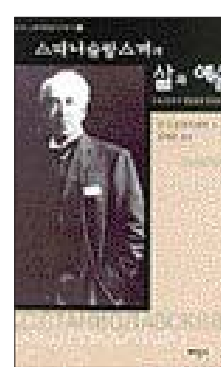
우리 또래가 소년기를 보낸 1970년대는 아직도 궁핍함이 짝국
처럼 흐르던 시절이었다. 마땅히 즐길 것이 없었던 그 때 나는 방
안에 처박혀 책만 보았다. 명작들은 물론이고 만화, 무협지까지 다
치는 대로 읽었고, 선배들이 보았던 연애소설까지 저인망식으로
잡았다.

소년기의 그러한 정서적 자양분이 오늘 날 나의 심미안은 물론
인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이었던 생각이 든다. 내게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읽었던 책들의 영향이 컸을 거
라는 데 의심을 하지 않는다.

서정주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바람'이라고 했다. 인생 가운데 '8
할이 바람'이라고 했던 것이다. 물론 자신을 키워준 자양이 '바람'
이라는 뜻일 게다.

시인의 '바람'은 내게 있어서 '연극'이다. 수많은 연극 작품을 만
들고, 직접 무대에 오르면서 인생의 환희를 느꼈고, 연극은 언제나
내 삶의 버팀목이었다. 고교시절 우연한 기회에 입문한 뒤 연극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는 30여년의 세월은 때로는 황무지보다 겨울

삶을 창조하는 무대위 예술



고 때로는 눈보라 속보다 험했다. 배우라
는 직업은 '무대'에 설 때 환희를 느끼기
만 그 과정에 이르는 길은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지난한 일인지라 좌절도
있었지만 곧바로 툭툭 털고 일어나 또 다
른 연극을 꿈꿨었다.

현장에서 땀 때는 이리저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지만, 강의실에서 후학들
에게 연극학을 강의하면서는 현장경험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실감했다.

이런정답이 허약하니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았다. 현장과 이론을 접목한 제대로 된 강의를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고민 하던 중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삶과 예술'이란 책을
잡게 되었다.

이 책은 스타니슬라브스키에게서 연극 공부를 하고 평생 러시
아 연극을 연구한 저명한 연극학자 인나 샬로비에바 교수가 저술
한 데다가 현지에서 스타니슬라브스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세종대학교에서 연극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태훈이 번역
을 했기 때문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다.

본문 자체는 시공간을 넘나들기 때문에 연대기처럼 읽혀지지는
않지만 스타니슬라브스키에 최대한 밀착해서 그의 인간됨과 예술
세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대단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마치 옛날
의 사 진첩을 들으면서 추억을 반추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 책을
읽은 소감이다. 그때부터 멀게만 느껴졌던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대단히 가까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스타니슬라브스키의 '배우수업'이 연기예술의 문법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여 후대의 연극인들에게 시스템을 제시했다면 이 책은
스타니슬라브스키의 내면 세계를 낱말화해서도 객관적으로 파헤
쳤기 때문에 그동안 이론으로만 받아들였던 스타니슬라브스키를
몸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
을 주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또는 전혀 낯
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추구한 예술의 목적이었다.

박윤모 〈연극인·공동예술극장 관장〉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서양속담은 지나친 호기심이 위험을 초래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
진은 영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의 한 장면.

불도저식 개발 정책의 병폐 꼬집어

직선들의 대한민국 우석훈 지음

20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88만원 세대'
의 저자 우석훈씨가 날카롭고 기발한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분석한 '직선들의 대한민국'을 출간했다.

'한국 사회, 속도·성장·개발의 달레마에 빠진다'
는 부제가 붙은 이번 책에서 저자는 한국사회를 망
쳐버린 건 경제적 이성, 합리적 상식을 버린 채 앞만
보고 달려가는 '불도
저들'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저자는 성과주의가 마비시킨 합리성의 대표주자로 청계천 복원을 지목
하고, 토목공학국으로 전락해 버린 한국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자신을 'C급 경제학자'라고 부르는 저자는 결국 불도저를 멈추기 위해
서는 한국의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 '개발주의'를 생태
적 관점에서 무장해제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1만 2천원·웅진지식하우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설의 소재는 어떻게 찾고 쓰기는?

소설을 살다 이승우 지음

소설가 이승우(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씨가
'당신은 이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에 이어 두번째
창작 노트 '소설을 살다'를 펴냈다.

책은 소설 쓰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설 안'과,
소설 읽기에 대해 이야기한 '소설 밖'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 쓰는 태도와 의미에 대해 쓴 '소설 안'에서는 왜 소설을 쓰는지, 소
설의 소재를 어떻게 찾는지 등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풀
어냈다.

'소설 밖'에서는 미셀 투르니에의 '예찬', 앙드레 지드의 '좁은문', 최승
자의 '일찌기 나는', 이스마엘 카다레의 '부서진 사월' 등에 대한 단상을 만
날 수 있다. 이씨는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식물들의 사생활' 등 그
의 대표작은 독일어·프랑스어로 번역 소개됐다.

〈미음신책·1만 1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YUNJIN 투자의 빛이 되겠습니다!
수완 신도시 현진에버빌
단지내 상가 특별 분양!
1단지 672세대 2단지 509세대
현진에버빌의 품격과 미래가치
이제 단지내 상가로 이어집니다.
은행이자대출 최고 40% 지원!
역시! 단지내상가도 현진에버빌입니다!
1. 100M 이내 초·중·고교 초근거리 인접
2. 수완 신도시의 미래가치와 프리미엄
3.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독점적 상권
4. 풍부한 배후 대단위 주거단지 인접
분양문의 062-361-8022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현진에버빌 모빌하우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地友 부동산컨설팅
부동산 실무전문 컨설턴트 상가 ☎ 062) 655-0063
011-9609-9500
◆ 믿음,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
는 부동산
◆ 광주·전남 전지역 정확한 권리
분석
◆ 10년간 경·공매 실전경험으로
철저한 수익성분석
◆ 투자자의 마음으로 고객을 상담
하겠습니다.
※ 부동산 제테크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누구
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과 과정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地友와 함께 직접 실무와 경험하는 자세
가 제테크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 남녀적원모집
대표 임근철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공매 분석사
·부동산 권리 분석사
·부동산 분양 상담사
·초담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수완 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토지매매
▶수완지구 332-1(명의변경가능) 80㎡
▶수완지구 720㎡ 33㎡ 600㎡
▶수완지구 833-3 80㎡ 대문 앞 상가용지
▶수완지구 720㎡ 33㎡ 600㎡
▶수완지구 아파트 단지내 상가 입구
상가용지 500㎡ ㎡당 190만
▶수완지구 35㎡ 대문 앞 버스정류장 앞
상가용지 820㎡ ㎡당 300만
▶수완지구 35㎡ 대문 앞 상가용지
▶수완지구 4,231㎡ ㎡당 70만(부동산)
▶수완지구 상가용지 374㎡ ㎡당 30만(전주거)
▶수완지구 상가용지 374㎡ ㎡당 30만(전주거)
▶수완지구 상가용지 374㎡ ㎡당 30만(전주거)
▶수완지구 상가용지 374㎡ ㎡당 30만(전주거)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자점,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점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인과, 피부과(비인두과) 및 임대중점수당량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라마켓 임점확정
2층 파파코스 피자 임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①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①
광주·전남지역 주요소·총점소 거래 전문

생계형, 음식, 호프, 고치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60 · 010-9115-4467
기획·매뉴개발·매각상담·결정진단·인테리어
▶서구 매일동 보증금 5천만원 월1백4십만
▶서구 화정동 보증금 1천2백만 월5십만
▶서구 생촌동 보증금 2천만 월1백2십만
▶서구 중앙동 보증금 5천만 월7십만
▶서구 차평동 297㎡ 보증금 3천만 월3백4십만
▶서구 미륵동 주차장 990㎡ 보증금 3천만 월1백4십만
▶광산구 옥석동 주차장 990㎡ 보증금 2천만 월1백5십만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북구 양산동 보증금 1억 월600만원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 월80만원
▶광산구 쌍암동 보증금 6천 월300만원
▶서구 금호동 보증금 1억 월300만원
▶서구 화정동 보증금 1,200 월60만원
※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별도
영업이 부진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매뉴개발 경영 노하우 전수!
식당 전문 컨설팅과 상담하십시오.
※생계형 신규영업 상담상담비용 2천만원에서 10%까지 다양형 배제 임대 수시 접수합니다※